

해학적인 이야기 창극 '배비장전'

이달 5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서 무료관람
"우리 사회 자화상 잘 보여주고 있는 현대판 해학창극"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해학창극 '배비장전'이 고창군과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주최로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올해의 정기·순회 공연작인 배비장전은 배비장타령(裴裨將打令)에서 비롯한 판소리계 소설로, 여색에 빠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제주도로 떠난 배비장이 기생의 유혹에 빠져들어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로, 양반의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재치있는 재담이 담겨 있다.

배비장전은 조선후기에 지어진 작자미상의 고전소설로, 판소리로 불리어진 배비장타령이 소설화된 작품이다.

판소리 열두마당에 속하지만, 고종 때 신재효가 판소리 사실을 여섯마당으로 정착시킬 때 빠진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배비장타령은 판소리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사설은 소설로 남아 오늘날 창극,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으로 변용되어 무대에서 활발히 스토리텔링 되고 있는데, 그만큼 현대의 대중들에게 딱 맞는 주제와 서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창극 배비장전의 주요 등장인물은 배비장, 애랑, 김경 목사, 방자 처플 등이다.

배비장은 평소 구대정남(九代貞男)을 자처하는 인물로, 그는 애랑, 처플 등 주변인들의 공모에 의해 개, 가야금으로 변신하고 꿩에게 잡히는 등 우스꽝스럽게 전락하며 끊임없이 풍자된다.

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전북도립국악원 창극

단, 무용단, 관현악단 및 객원을 비롯한 90여 명이 출연하는 창극 '배비장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대판 해학창극"이라며 "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에 많은 분들의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좌석예약 지정제로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예약과 현장예약과 공연당일 선착순으로 좌석지정을 받아야 관람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학창극 '배비장전'이 고창군과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주최로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군산시립예술단, 5일 한여름 희망콘서트 열어

군산시립예술단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5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여름 희망콘서트'라는 주제로 시립예술단 특별기획 연주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 아래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시작으로 친근한 뮤지컬과 영화 음악을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더해 선보일 예정이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군산시민 모두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티켓은 전석 무료로 현장티켓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어린이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 7일 익산 슨리문예회관서

곰돌이의 탈출기를 그린 어린이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이 7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익산 슨리문화예술회관 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 공연은 '모모', '끝없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동화작가 미하엘 엔데(Michael Ende)의 작품 '돌이 워서블의 여행'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국악뮤지컬이다.

지난해까지 90% 이상 관객접유율을 기록하며 어린이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편곡된 전래동요와 생생한 연주로 동물들의 특징을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맛깔나게 표현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한자극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는 어린이 국악뮤지컬은 아동극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시나리오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전통 캐릭터 마고할미(소원을 들어주는 신령하고 영험한 할머니)의 등장으로 재미를 더하고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도 던질 예정이다.

또한 전래동요 콘텐츠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군밤타령', 민요 '능실타령' 등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편곡된 전래동요부터 곰돌이의 여행 어린이 관객들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창작 국악 동요까지 전문 소리꾼 경기도립국악단 성악팀

이 불러준다. 더불어 국악 실내악 연주에 맞춰 우리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놀이시간도 마련된다.

이 공연은 익산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익산예술의전당과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속도 빠른 소비문화에 익숙해 물질적 결핍이 부재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arts.ilsan.go.kr)나 익산 예술의전당(☎063-859-5278)으로 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키즈보석 아카데미... 박물관이 살아있다'

익산 보석박물관, 초등생 대상 여름방학 체험행사

익산 보석박물관(관장 정원섭)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전국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얼리(귀금속, 보석) 및 공룡, 예술 및 자연 등 다채로운 내용들의 현장 중심,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키즈보석 아카데미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8월 3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1기부터 4기까지 3주간(8월 3일, 8일, 10일, 17일) 진행되며 7월 2일부터 보석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높은 인기로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홈페이지에 게시 후 항상 조기 마감 되어왔다.

교육내용으로는 1교시 신비한 보석이아

기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보석박물관 전시관 투어와 보석감정·감별, 2교시는 크리스탈(결정) 키우기로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이다.

이어 3교시는 화석과 공룡에 대해 알아보고 인조보석과 각종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공룡가랜드를 완성한다.

점심식사 후 4교시와 5교시는 빛과 모래 예술 체험 및 미니동물원 체험으로 미니 돼지, 스컹크, 앵무새 등 동물 친구들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보석박물관에서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신나게 놀며 올 여름 방학기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안전한 시설관리를 손꼽아 기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찾아가는 상설공연 '전통 이어가는 생활문화Day'

내일 저녁 7시 금마 선화공원 야외무대... 하모니카, 통기타, 색소폰 등

익산시가 4일 저녁 7시 금마 선화공원 야외무대에서 '2018 찾아가는 상설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연은 익산의 고도(古鄣)이자 마한·백제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금마의 시가지내에 조성된 선화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 자연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역사문화형 생태 공간에서 익산 시민들에게 문화적 감성을 채워주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힐링과 낭만이 있는 생활문화Day 옹포캠핑장편과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Day 배산체육공원편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

되는 이번 공연은 익산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모니카, 통기타,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동호회가 출연하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2018 찾아가는 상설공연은 앞으로도 9월 합영 아사달공원, 춘포역, 10월 문화예술의 거리 등 문화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생활밀착 주거단지과 익산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 익산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설공연을 통해 생활문화 저변확대와 문화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문체부, 문화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 공개 추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 2일부터 11일까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추천위에 참여할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그동안 문체부는 자체적으로 추천위를 구성·운영했으나, 위원 선임 절차의 개방성을 높이고 추천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각 추천 분야와 인원은 ▲무용 2명, ▲음악 2명,

▲문화일반 5명이다. 한 단체당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추천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는 공모문의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jsk0805@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